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본질에 대한 연구*

이 근 무

(성균관대)*

김 영 숙

(삼육대)**

[요 약]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생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규범적 실천을 살펴보고 사회복지 지식의 재구조화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성찰적 내러티브 방법을 원용하였고 연구에는 6명의 현직 사회복지사가 참여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기존이론과 지식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직면했을 때 자기 성찰을 통해 지식을 만들었고 실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실천현장에서의 지식개발 방법론으로 귀추 추론 양식, 사회복지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 네트워크의 지식공동체로의 재구조화를 제언했다.

주제어 : 실천지식, 성찰적 내러티브 방법, 사회복지 지식의 재구조화

1. 서론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 이라기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 애매모호함 등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精緻)한 과학적 검증과정을 통과한 지식들도 종종 유용성을 상실하여 용도 폐기되는 지식의 무덤이 되기도 한

* 본 연구는 공동저작임으로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지 않았다.

** 공동저자

*** 공동저자, 교신저자

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Tice(1998)가 우려한 바와 같이 '표류하는 전문직'(vagrant profession)이 될 위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은 양면성이 있다.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를 인지한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기존의 지식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특수성과 상황, 그리고 맥락 속에서 이를 재구성하는 성찰적 실천(유영준, 2006; 김인숙, 2004; D'Cruz, Gillingham and Melendez, 2007; Fook, 2002; Parton, 2000)을 수행하여 이론의 현실 설명력을 수정, 보완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찰적 경험과 그 과정에서 생성된 자기변용은 새로운 실천지식 생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Elbaz(1981)가 지적했듯이 실천가들의 실천지식 개발 욕구는 개인적 경험, 사회·역사적 요구, 신념, 기존이론에 대한 회의 등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새로운 지식창출에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지식체계와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구체적 경험세계에서 산출한 실천지식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계의 오랜 논란거리인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사회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 지식의 정체성을 재구조화 하고 풍성함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 사회복지 연구를 살펴보면 근래에 들어 성찰적 실천에 대한 개념모색과 필요성(김인숙, 2004; 홍선미, 2003; 김기덕, 2003), 사회복지 특성에 맞는 지식체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홍선미, 2004) 등이 있었고 유영준(2006)은 심층경험연구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성찰적 실천의 양태와 자기변용의 차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성찰적 실천을 수행하여 생성한 실천지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론과 실천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복지의 경우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조형된 지식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천지식의 생성주체인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실천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 생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이의 규범적 실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을 생성과정과 내용 그리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조적인 순환의 틀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 지식의 규범적 성격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지식은 본질적으로 실천과 분리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복지 지식은 지적활동의 산출물을 넘어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정향에 규범으로 구체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연구자들의 분석틀은 이를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리라고 사료된다.

2. 되어감으로서의 실천지식

사회복지사들이 실천현장에서 생성한 지식은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¹⁾이라고 할 수 있

1) 과학적 지식은 일반적으로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과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

다. Polanyi(1958)의 고전적 정의에 의하면 개인적 지식은 행위자의 신체내부에 있는 체험의 구조이고 이것은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것으로서 말로 표현할 수도 전달할 수도 없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개인적 지식은 언어를 통해 명시적으로 표상될 수 없기에 일견 지식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단언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제로서 언어화된 것만이 지식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지식은 명제로서 언어화할 수 있는 명시적 부분과 언어화할 수 없는 암묵적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Jasper, 2003; Schön, 1983). 특히 사회복지 실천에는 과학이나 언어로 객관화할 수 없는 기예적 속성이 존재하고(김기덕, 2003) 있음을 인정한다면 사회복지 현장의 개인적 지식들은 단순한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이 아니라 실체적 지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개인적 지식이 지식으로서의 존재형식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인식론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수학적 환원주의 지식관과 뉴턴의 법칙의존적인 기계주의 지식관으로 개인적 지식을 논단하려는 시도는 없다. 하지만 일부의 논자들은 개인적 지식을 수용한다고 해도 이것들을 개인의 믿음, 정서, 바라는 것들과 같은 일종의 신념체계(Clandinin and Connelly, 1995)로 보고 있다. 때문에 설명 지식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구체적 내용으로 결집할 수 없다(Fendler, 2003)며 지식으로 상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의 대척점에 서있는 또 다른 연구자들은 개인적 지식은 삶에 있어서의 변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실천에 유용한 레퍼토리의 풍성함(Colne, 2003)을 가능케 하고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력 증진(Geijel, Slegers, VandenBerg and Kelchtermans, 2001), 현상에 대한 발견적, 맥락적 이해로 갈 수 있는 통로(Armstrong, 2003; Bolton, 2000) 등과 같은 실천적 유용성을 내세워 개인적 지식의 가치를 옹호하기도 한다. 결국 개인적 지식의 변호자들은 실용적 가치를 내세워 인식론적인 고민을 우회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지식과 같은 개인적 지식은 실천가들의 개인적이고 때로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세계를 인식과 판단의 준거로 하고 있다(Nonaka, Totama and Nagata, 2000). 이같이 경험에 기초한 지식은 공식화하기 어렵고 전수와 학습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경영학은 물론 교육학 등의 여러 학제에 수용되어(Duguid, 2005) 혁신을 창발하는 기제로 때로는 창의적이고 성찰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다(AitRazouk, Bayad and Wannemacher, 2009; Foos, Schum and Rothenberg, 2006). 특히 탈 경험주의(post-empiricism) 입장에서 객관주의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급진적 사회구성주의 인식론에서는 개인적 지식을 인간진보의 조건이자 모든 지식의 출처로 간주하기도 한다(Ray, 2009).

사회복지의 경우 개인적 지식은 이론과 실천 간의 긴장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일종의 완충지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 교육과정에 있어 이론가들과 실천가들이 공동으로 교육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한다(Lewis and Bolzan, 2007).

개인적 지식이 독단과 불확실성, 그리고 검증불가능 이라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으로 구분되고 이 선언적 지식은 다시 현상에 대한 설명과 법칙, 이론 등을 의미하는 결과적 지식(terminal knowledge)과 의문이나 가설 등을 포함하는 중간적 지식(intermediate knowledge)으로 구분된다(Anderson, 1995).

(Rhodes, Nelson and Berman, 2003; Mitsuhashi, 2002) 여러 학제에서 수용된 이유는 개인적 지식의 공유 가능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Collins(2007)는 암묵지를 개인의 내적 세계에만 국한된 생체 제한적(somatic-limit) 암묵지와 다른 사회성원들과 공유가 가능한 집단적 암묵지(collective tacit knowledge)로 구분했는데 이 집단적 암묵지의 영역에서 공유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의 속성 중 하나가 공유임을 인정한다면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적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지식의 출발은 주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성적 회고, 의사소통적 대화 등을 통해 상호주관성을 확보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주관과 객관은 상호대립이 아니라 순환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지식은 본질은 되어감(becoming)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차원에서 생성한 실천지식 역시 이 되어감의 수준에서 살펴보아야만 할 것이고 실천지식의 내용은 물론 그 과정과 규범적 실천이라는 연계된 틀에서 분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3. 연구방법

1) 성찰적 내러티브(reflective narrative)탐구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은 한 개인의 전인적 체험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되기보다는 이해,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지식의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살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사료된다. 왜냐하면 해석학적 전통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한편 현재에 대한 해석은 과거의 경험이 선구자로 주어져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시간과 역사가 만드는 과정을 포착하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Smith, 1993)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해석학적 패러다임을 근거기반으로 하는 질적 연구 방법들 중 내러티브 탐구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지식은 상황, 맥락, 관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내러티브 탐구는 이를 풀어내어 성찰의 과정을 거쳐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론이기에 개인적 지식을 구조화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Richert(2002)가 제안한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원용하고자 한다. 성찰적 내러티브 방법은 내러티브²⁾방법의 내면탐구기능 이외에 자기학습의 기능을 첨가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을 어떻게 공유하고 토론과 숙의를 거쳐 상호주관성을 확보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론이다. 본 연구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차원에서 생성한 실천지식이 어떻게 상호주관성을 확보해 나가고 규범으로 이어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성찰적 내러티브 방법론은 연구목적에 달성하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성찰적 내

2)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적 경험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론으로 개인의 이야기(narrative)가 주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러티브 연구방법은 Richert가 교사들의 자기교육을 위한 연구 방법으로 제시한 이후 주로 교육학계에 서 많이 활용되었고 한국의 경우 최인자(2007)가 국어과 초임교사들의 자기교육 과정으로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 연구 설계

(1) 연구참여자 선정

개인적 지식은 단기간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경험과 관계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종사해온 사회복지사 6명을 선정했다. 연구 참여자는 세평적 사례선택³⁾(reputational case selection, 世評的 事例選擇) 방법으로 선정했다. 지역사회복지관 관장 2명과 실천경험이 있는 사회복지학 교수 1인에게 연구주제와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11명의 현직 사회복지사를 소개 받았다. 이중 6명이 연구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연구참여자 선정기간은 2007년 10월~2008년 1월 까지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 실천 관련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복지실천 관련사항

구분	성별	연령	학력	종사기관	사회복지경력	복수자격증	종교
연구참여자1	여	39	대졸	종합사회복지관	11년		기독교
연구참여자2	여	35	대졸	아동복지기관	9년	보육교사	불교
연구참여자3	여	41	대학원졸	정신보건센터	15년		기독교 (가톨릭)
연구참여자4	남	38	대졸	장애인복지관	8년		불교
연구참여자5	여	33	대졸	탈성매매여성 지원센터	9년		무
연구참여자6	남	37	대학원졸	종합사회복지관	10년		불교 (원불교)

(2) 자료 분석을 위한 텍스트 구성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나 글로서 표현하는 서사적 구조 형성과정과 이를 동료나 연구자와 공유하고 성찰적 회고와 토의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성찰적 과정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연구자의 분석을 위한 최종 텍스트로 결집되어야 한다. 따라서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와 연구텍스트로 구분되어야 한다. 현장텍스트와 연구텍스트 구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은 특정 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했거나 연구주제와 관계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사람에게 연구참여자 소개를 의뢰하고 참여자를 소개받는 것이다.

① 현장텍스트

가. 자전적 서사 이야기 : 1단계

자전적 서사 이야기는 사회복지 실천가로서의 자전적 생애와 실천경험을 이야기나 글로서 표현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생애사 쓰기보다는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였기에 일화중심의 스토리텔링 위주로 진행했다. 이 단계에서는 일화에 대한 세부적 묘사, 이와 관련된 외부의 사건과 연구참여자의 갈등, 혼돈과 같은 내부적 감정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했다.

나. 자전적 이야기에 대한 성찰하기 : 2단계

이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고 이를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녹취하여 전사한 내용을 읽고 의미를 구성했다. 연구자들은 실천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적 변증 과정을 거쳐 진화한다는 기본 정향을 지니고 있기에 분석에 있어 동태적 과정과 내용을 중시했고 다음과 같은 분석 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하여금 연구자들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성찰록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분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나타난 주요 딜레마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처리하였나
- b. 이론과 실천의 괴리는 어떻게 나타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였나
- c. 과거의 성공적인 문제해결 경험은 당면문제 해결에 어떻게 작용하였나
- d. 이 같은 문제해결 과정의 저변에 깔린 자신의 신념, 가치는 무엇인가
- e. 문제해결 또는 실천과정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지식의 유무와 그 내용은 무엇인가이다.

다. 이야기의 공유를 통한 상호주관성 찾기 : 3단계

이 단계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모여 성찰적 이야기를 함께 읽고 토론하며 상호주관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연구자는 3단계 과정 역시 녹음하여 이를 전사했다.

위와 같은 현장텍스트 구성에 11개월이 소요되었다. 자전적 서사 이야기와 이에 대한 성찰하기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각각 3개월(2008년 2월~5월), 4개월(2008년 5월~9월)이 소요되었다. 상호주관성 찾기는 연구자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월 2회 일정장소에 회합하여 진행했다. 1회당 평균 120분이 소요되었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4개월) 진행되었다.

② 연구 텍스트

연구 텍스트는 현장텍스트와 연구참여자들의 허락을 얻어 복사한 실천메모(연구참여자 1) 실천현장에서의 딜레마와 혼란 등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개인문서(연구참여자 3·6), 동료, 선배 그리고 대학 은사 등에게 실천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서신(연구참여자 1·2·4·5)과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에피소드를 담은 소식지 등을 수집하여 분석을 위한 연구텍스트를 구성했다.

3) 자료 분석

현장텍스트 중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자전적 서사 이야기와 성찰록은 줄 단위로 분석하여 해체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의미소(意味素)를 만들었고 이를 기초로 연구참여자로 6개의 개별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개별 프로토콜은 사건중심의 연대기순 생애사 형식으로 구성했다.

개별 프로토콜은 내용분석을 했다. 내용 분석은 연구 목표인 실천지식의 생성과정, 내용, 규범적 실천양상이라는 분석틀에 맞춰 다시 해체했고 내용분석을 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와 내용 등을 도출했다.

4.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프로토콜⁴⁾

(1) 연구참여자 1 : 서로에게 빛집으로서의 생명현상

연구참여자 1은 대학 졸업 후 수도권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했다. 연구참여자는 대학시절부터 빈곤계층에 관심이 많았고 주로 진보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빈곤관련 문헌들을 탐독했다. 사회복지사 초년생 시절 실천가로서 이론적 배경은 소위 “희생자 관점”이었다. 빈곤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라는 것이 그의 이론적 정향이었다.

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적지 않은 클라이언트들은 연구참여자가 보기에 자본주의의 모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명절 때 나누어준 농협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술을 사는 클라이언트나 자녀가 학교에서 상품으로 받은 학용품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담배와 바꾸는 클라이언트 등등. 연구참여자가 목도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을 희생자로 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억지였고 건강부회였다. 연구참여자는 간 신뢰의 근거로 삼고 있던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체계마저 기저로 부터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 입사동료는 “좀 더 나은 직업을 찾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에게 사회복지사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그렇다고 확실한 신념도 없이 사회복지 일을 할 수는 없었다. 다음의 일은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 관심의 규명이었다. 이마저도 없다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은 “빈껍데기 삶”이 될 것 같았다.

4) 연구참여자들의 개별 프로토콜은 현장 텍스트와 연구텍스트를 분석하여 실천지식의 생성과정, 내용, 규범적 실천 그리고 자기변용을 생애사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기본으로 했고 필요에 따라 관찰자 시점도 사용했다. 본문 중 양 따옴표로 표시한 내용은 연구자들의 구술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좌파 사회학자 그람시의 저작을 탐독했다. 하지만 희생자는 정당하다는 그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현재의 클라이언트들을 떠올렸지만 그람시류의 분석을 지지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벽에 막힌 기분이 들자 대학시절의 은사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은사는 “과학과 이론 보다 앞선 모든 것의 뿌리로 되돌아가 생명현상의 근원을 찾아보라”고 권했다. 연구참여자가 알고 있는 근원적인 삶이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었고 “먹고 먹히는 관계”였다. 그러던 중 연구참여자는 고대 마야의 사면을 연구한 문헌에서 “생명”이란 마야말로 “서로에게 빚짐”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그는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먹고 먹힘”이 아니라 “먹음과 되먹임”의 순환관계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연대 또는 사회적 이타심의 발로라기보다는 “서로의 부채를 갚는 집단행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을 갚는 데에 있어 상대방의 근로의욕, 도덕성, 우호적 태도 등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가설적 명제를 정립한 후 실천현장에서 자신의 직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구체적 맥락 속에서의 확인이 없다면 연구참여자의 가설은 단지 미사여구나 수사학적 은유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연구참여자의 클라이언트들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었다. 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너희들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 했다. 연구참여자의 이 같은 행동은 곧 동료 사회복지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러한 인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고뇌와 성찰은 살피지 못하고 “문학소녀류의 감상주의” 정도로 치부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연구참여자는 연구자들의 현장텍스트 구성 3단계인 이야기의 공유를 통한 상호주관성 찾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연구참여자 3·5 역시 연구참여자 1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3·5는 왜 사람들은 서로 도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해 고뇌하기보다는 주어진 사회적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상호주관성 찾아가기에서 연구참여자 2가 의미심장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다.

연구참여자 2는 초등학교 시절 우연히 개미들을 관찰했다고 한다.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죽은 잠자리의 몸 토막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연구참여자 2는 일개미들 중 적지 않은 무리가 운반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것을 발견했다. 근면과 협동의 상징으로 알려진 일개미들의 세계에도 “유한(有閑) 개미”는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놀고 먹는 개미”들의 역할에 대해 매우 궁금해 했는데 사람들의 세계에도 역시 놀고 먹는 계층은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 생활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는 일종의 “부조리”에 가끔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일이 감당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연구참여자 4는 일종의 “보험료”라는 견해를 피력했고 불교신자인 연구참여자 6은 “현존하는 모든 문제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지은 공업(共業)이고 사회적 약자들 중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은 공동의 없을 씻는 업장소멸 행위”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부기하여 연구자는 참여자 1에게 S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이○○ 교수의 소위 기생철학(寄生哲學)의 요지를 이야기 해 주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사는 것이 본질이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은 상호주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생명현상은 서로에게 빚짐”이라는 자신의 직관적 아이디어의 공감대를

넓혔다. 그리고 이 같은 명제는 그의 표현대로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지고 가야 할 실천 화두"로 각인 되었다.

(2) 연구참여자2 : 관심의 사회적 외연확대

연구참여자 2의 사회복지사 생활은 평탄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학교를 마쳤고 사회복지사로서 입문한 뒤에도 별다른 도전이나 동요 없이 사회복지 일을 수행했다. 연구참여자의 주요 클라이언트들은 아동들이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는 아동들도 있었지만 대개는 온순했고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도 연구참여자의 개입이 있는 후에는 대부분 호전되었다. 사회복지사 5년차 시절 연구참여자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만났다.

당시 연구참여자는 가정위탁 의뢰된 한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클라이언트인 아동은 번번이 위탁가정에서 쫓겨나 소위 "위탁가정 쇼핑"을 하고 있었다. 아동은 행동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물건 훔치기, 기물파괴는 물론이고 열두 살 입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그 아동에게 품행장애라는 예단을 하고 접근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의 실천개입이나 인지 심리학 실천기술 등을 모두 동원했지만 아동은 요지부동이었다. 교과서의 지식체계는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사회복지사 생활에 아동과 같은 무수한 클라이언트들이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대학선배의 메일을 받고 마음을 바꿨다. 아동은 연구참여자가 "넘어야 될 산"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아동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원인만큼은 알고 싶었다.

연구참여자는 교회 기도모임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 그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새엄마를 맞아들이자 아버지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새엄마로 옮겨갈까봐 일부러 고사떡 위에 모래를 뿌렸다고 말했다. 연구참여자는 아동들의 문제행동 이면에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연구참여자는 "아이들의 문제행동은 소외된 감정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나름대로의 명제를 상정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거친 연구참여자는 사례관리 실천에서 "사정항목을 지워 버렸다." 문제행동의 유형이나 정도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연구참여자의 표현처럼 "참고사항"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아동들이 어떤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가를 세밀히 살피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응대했다.

현장텍스트 구성과정에 참석한 연구참여자는 "관심중심의 실천"을 공유했다. 연구참여자들 모두는 그의 견해에 동의했고 실천경험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연구참여자 1은 "관심을 끌기 위해 매일 모임에 늦게 참석하는 아동"을 이야기 했고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고 나오는 노인"(연구참여자3), "가족들의 무관심 때문에 몰래 술을 마시다가 알콜중독자가 되어 버린 주부" (연구참여자5)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 연구자는 무관심이란 "사회적 집단 사형선고"와도 같다는 옛 우화⁵⁾를 이야기 했다.

5) 옛날 어느 고을에 일탈적인 행동만을 골라하는 사나이가 있었다. 고을원은 그를 가두거나 곤장을 치는 형벌을 가하지 않고 이마에 사(死)라는 낙인을 찍었다. 사나이는 아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고을 사람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다. 물건을 부수거나 훔쳐도 죽은 귀신이 하

연구참여자는 관심중심의 실천을 자기가 받은 관심을 타자와 사회로 돌리는 “관심의 사회적 외연 확대”로 완성하겠다는 실천의지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3) 연구참여자 3: 무의식적인 자기징벌 소망

연구참여자 3은 정신보건전문 사회복지사이다.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과정을 마친 후 정신과 병원에서 경력을 쌓았다. 연구참여자가 그간의 축적한 정신건강 분야의 지식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클라이언트를 만난 곳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센터에서였다. 당시 동 센터에는 관계자들을 진땀 빼게 만드는 클라이언트가 있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처음에 센터의 스태프들은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음성판정을 받았다. 음성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담을 요청했다. 클라이언트는 이공계열 대학을 나와 입시학원에서 과학과목을 교수하는 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판정 결과를 믿지 않았다. 계속되는 상담요청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연구참여자는 처음에 일종의 체계화된 망상 환자로 여겼다. 하지만 망상 환자들의 주된 증세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염려증으로 의심이 되어 MMPI(다면적 인성검사) 검사를 받게 했으나 검사결과 건강염려증으로 판단할 수도 없었다. 최종적으로 정신질환 증세의 하나인 작화증을 의심했으나 에이즈에 걸려있다고 믿는 것 이외에는 모든 인식과 행동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진솔했다. 결국 정신과적 진단 범주로는 클라이언트의 반복되는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런 사실이 점차 알려져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에이즈 환자 취급을 했고 학원 강사일 마저도 그만두었다. 직업을 잃은 후 다시 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는 오히려 전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고 활기도 있었다. 역시 상식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연구참여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인지차원에서는 자신이 에이즈 보균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렇다면 왜 당사자는 끊임없이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고 믿고 자신을 스스로 몰아매는가에 대한 강렬한 의심이 생겼나. 그 의문은 정신과 교과서나 정신건강분야에서 주된 실천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는 인지이론으로는 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인지 수준에서는 자신이 음성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담당했던 모든 사례를 떠올렸지만 “실오라기 하나 잡히지 않았다.”미로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연구참여자는 한국 현대 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한 선승의 일화가 떠올랐다. 그 스님은 결혼을 한 후 출가를 했는데 지방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다가 집안의 대를 이어 달라는 노모의 간곡한 청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식을 얻게 되었고 그 후 평생을 참회하는 마음에서 맨발로 다녔다는 일화였다. 이 일화에서 연구참여자는 인간에게는 고통을 통해 자신의 허물을 벗고자 하는 근원적인 욕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물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클라이언트에게 걸었다. 연구참여자는 그 클라이언트도 에이즈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벗고 싶은 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상담이 깊이를 더해가자 “묻혔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다.”클라이언트는 혼인의 순결과 신성함을 신봉하는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다. 결혼 전까지 동정을

는 것으로 여기고 일절 응대하지 않았다. 옆에서 말을 걸어도, 욕을 해도 무관심했다. 결국 사나이는 고립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지켰다고 한다. 하지만 동료들과 같이 간 유흥주점의 접대부 여성과 술김에 동침을 하는 실수를 했다. 클라이언트는 새벽마다 회개의 기도를 했지만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 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과 아내에게 큰 죄를 지었으니 에이즈 같은 천형(天刑)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연구참여자는 이와 같은 죄의식이 무의식적인 자기 징벌 소망으로 전이 되었고 중국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HIV바이러스 보균자라고 믿는 인식의 왜곡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연구참여자는 이 같은 무의식적인 자기 징벌 소망이 적지 않은 일탈, 비상식적 행동의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실천 가설을 정립한 후 연구참여자는 클라이언트와의 상담 과정에서 이를 수차 확인했다. 한 예로 연구참여자의 클라이언트들 중 음주문제를 가진 중년의 가정이 있었다. 그 클라이언트는 술만 마시면 낮모르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구타를 당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구타당하는 과정에 저항하는 일도 없고 또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지도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클라이언트 역시 자기 징벌 소망이 잠재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심층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연민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구타를 유발시켰다는 회고를 하기도 했다.

상호주관성 탐색 과정에 참석한 연구참여자는 "무의식적인 자기징벌 소망"에 대한 교차 확인을 했다. 연구참여자 1·3·5·6은 청소년들의 자해행위는 품행장애, 더 나아가 인격 장애 또는 타자에 대한 공격욕망이 자기에게로의 전환 등으로 설명되지만 자기 징벌 소망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4) 연구참여자 4: 사회복지 지식의 권력화

연구참여자 4는 과학적 지식의 신봉자였다. 그는 마치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주인공이 친구의 넥타이가 싸구려임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호언"하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 지식 역시 논리 경험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하나의 신념이나 가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때문에 실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효과가 검증된 실천기술·지식만을 원용하는 증거기반 실천에 경도 되어 있었다.

장애인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던 연구참여자는 참으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당시 연구참여자의 클라이언트들 중에는 알콜중독 진단을 받은 노점상이 있었다. 노점상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진 후 연구참여자는 알콜중독과 관계된 문헌과 영상자료 등을 "독파"했고 세미나 참석, 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실천지식을 축적했다.

가족상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클라이언트의 주변가족들이 당사자의 알콜문제를 심화, 조장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클라이언트는 부인과 이혼하고 노모와 살고 있었는데 노모는 그를 대신하여 술값 변제, 파출소에 출두하여 애걸하기 등은 물론 해장술을 원하는 아들에게 집에서 얹전히 먹이라는 조건을 달고 술을 사다주기도 했다. 이런 노모의 행동은 알콜문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금기시하는 행동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노모를 전형적인 공동의존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노모에게 알콜 전문가들이 금과옥조로 여겨온 소위 "냉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권유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술값을 대신 갚아주지 말고 설령 교도소에 가는 일이 있어도 형사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만들라고 강권했다. 하지만 노모는 이런 연구참여자의 해결방안을 거부했다. 연구참여자는 클라이언트의 알콜중독 증상은 노모로 인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그리고 한동안 클라이언트와 그의 어머니는 연구참

여자를 찾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는 약 3년이 지난 후 길거리에서 우연히 예전의 클라이언트와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클라이언트는 만 2년 쯤 단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만 2년의 단주는 임상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재발의 위험이 많이 경감된 안정기이다. 연구참여자는 "폐쇄병동 입원"과 같은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연구참여자가 공동의존으로 판단했던 노모와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 이외에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클라이언트가 단주를 결심하기 전일까지 그의 어머니는 술값을 대리 변제하고 술을 사다주는 행동을 반복했을 뿐이다. 연구참여자는 "경악"했다. 클라이언트가 회복되었다는 기쁨보다 자신의 "근거기반이 한꺼번에 우루루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연구참여자는 한동안 "인식의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알콜 전문 임상가들을 다시 방문하여 자신이 담당했던 클라이언트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구참여자가 찾은 3명의 임상실천가는 그와 같은 사례를 적지 않게 접했다고 했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실천지식과 정향을 성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전문지식을 무기로 하여 사람들을 지시하고, 규율하려고 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리고 정신과적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많은 정신질환은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허구요 신화라는 주장을 전개한 반정신의학자(anti psychiatry)들의 견해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성찰했다. 전문가주의에는 "가족에 대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끌림과 땀감 마저도 공동의존으로 명명하여 정신과적 진단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숨어있음"을 간파했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전문성 강화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상호주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는 이와 같은 "무겁고도 대면하기 싫은 주제" (연구참여자 2)를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연구참여자 4의 주제를 현학적인 취향의 발로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무엇보다도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의 순수함을 믿고 싶어 하는 듯 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2가 "다소 산만한 아동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판단하고 부모에게 정신과 진료를 권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아동이 정상을 회복하자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는 회고가 나오자 참석자들은 의식·무의식 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무기삼아 클라이언트들을 판단하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그들의 삶을 설계하려고 했던 경험을 분출했다.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이 고소득이 보장되는 복요리 전문조리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지적 장애 때문에 힘들 것으로 판단해 분식집 개업을 권유했던 경험" (연구참여자 1), "이혼한 가정의 아동들은 심리·정서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병리적 관점에서 접근했으나 의외로 건강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란 경험" (연구참여자 3)

"결혼 이후 여성들을 위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이 그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한국문화로의 일방적 동화라는 목적도 있음을 경험" (연구참여자5) 등을 이야기 했다. 특히 연구참여자 6은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참석자가 당신 가족에게도 이런 일을 권하겠느냐는 말을 듣고 놀랐다. 대부분의 직종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직종이다. 근로를 통한 사회통제 기제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고 술회했다. 이러한 논의는 사회복지 지식과 이에 근거한 실천은 근대적 억압권력의 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지식

을 포기해야만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인식(episteme)과 신념(doxa)의 영역에서 분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낼 수는 없었다. 다만 이러한 과정과 내용을 연구자가 결집하여 수사학적 어법으로 통역하면 '과학의 옷을 벗어 버리고 성찰의 안경을 쓰자'이다.

(5) 연구참여자5 : 애매모호함을 지고 가는 사회복지 실천

연구참여자 5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천하다 성매매 특별법 발효 이후 성 매수 피해 여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재적응과 재활을 지원하는 실천을 하고 있다. 성 매수 피해 여성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연구참여자는 여성주의 적 관점에서의 지식체계로 무장하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피해자이며 포주로 대변되는 남성 권력의 희생자" 라는 것이 연구참여자의 주된 시각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을 할 때에도 포주의 강압에 의해 강제 동원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연구참여자의 인식기반을 뒤흔든 것은 성매매를 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자신들을 "성노동자로 자리매김을 시킨" 소위 국제성노동자연맹 한국지부 회원들을 만나고 난 이후이다.

자칭 성노동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타당한 근거를 요구했다. 연구참여자로서는 풀지 못할 숙제였다. 어느 문헌에도 그에 대한 답은 없었고 세인(世人)들은 자신들의 가치나 인식론적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뿐 보편타당한 진술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연구참여자는 성매매 경험 여성들 (이 중에는 성매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있다) 과의 접촉빈도가 늘어가는 것에 비례하여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가치체계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다. 연구참여자가 만난 여성들 중에는 "인신매매법에 끌려왔거나 아니면 무작정 상경하여 호리꾼(그렇듯한 말로 남을 속여 유인하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 성매매를 한 여성은 없었다. 그것은 "신파조의 영화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성매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하는 가설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성매매 집중 단속 후 낫설은 일본이나 캐나다 등으로 이주하는 "이주 성노동자"들을 학습된 무력감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포주와의 예측 관계 역시 전화방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단독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일부 급진주의 여성주의자들처럼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보아야만 하는가? 이러한 논지들은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가치가 이를 용납하지 못했다. 연구참여자는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단지 이 사회의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용서해준다고 하는데 선생도 지식을 팔고 목사도 신부도 성경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우리는 왜 하나 밖에 없는 밀천인 몸을 파는게 죄가 되느냐"는 성매매 여성의 항변이 우회로를 차단했다.

연구참여자는 위와 같은 문제를 토론과정에서 꺼내놓았지만 연구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여하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연구참여자는 "왜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사회복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설령 하더라도 자신은 "사유의 능력을 상실한 꼭두각시 사

회복지사"밖에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이 문제에 더욱 참구(參究)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태도에 참석자들은 상황과 맥락은 달라도 저마다 풀지 못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연구참여자 3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일부 연구참여자 (1·4·6)는 확신도 없이 사회복지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밥벌이" (연구참여자 1)나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 (연구참여자4·6)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사회적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오랜 토론 끝에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 때로는 모순 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실천가의 삶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6) 연구참여자 6 : 노동하는 인간에서 소통하는 인간으로

연구참여자 6은 지역사회 종합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맡고 있다. 참여자의 실천정향은 노동을 통한 재활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는 엄격한 청교도적 가치가 신념체계의 근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비롯한 사회복지 급여가 빈곤계층을 영구히 빈곤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빈곤의 덫"이 될 수도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자립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일부 사회복지 정책학자들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지역사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기 시작했다. 50대 초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었다. 그는 컨테이너를 개조한 무허가 단칸방에서 노모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주위 사람들 말로는 평생 직업을 가져본 일이 없다고 했다. 참여자는 그를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그 클라이언트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복지사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경원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슈퍼마켓 앞의 파라솔에서 술추렴을 하다 그가 지나가면 자리에 끼워 술을 권하기도 했고 해장국집 주인은 종종 그에게 공짜 해장국을 주기도 했다.

연구참여자는 그와 수차례 "억지 상담"을 하기도 했지만 클라이언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수록 연구참여자는 "오기"가 났다. 클라이언트에게 밀착하여 노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럴 즈음 지역사회에 초상이 났다. 그 지역은 도시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전입이나 타지로의 이주 같은 것이 드문 곳이었다. 식당에 들른 연구참여자는 손님들이 "초상이 났으니 ○○○를 불러야지 한 부조할 텐데"라는 소리를 들었다. 손님들이 지칭하는 ○○○는 그 클라이언트였다. 초상집에서 클라이언트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 고인이 생전에 베푼 선행을 다소 과장하면서 친자식보다 더 슬피 울었다. 연구참여자는 "한 부조할 텐데"의 뜻을 알게 되었다. 초상집의 분위기를 그보다 더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클라이언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감지했다. 그는 혼사 집에 가면 생면 부지의 신랑 신부를 붙잡고 극찬을 한다. 또 초상집에 가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하여 아름답고 선하게 살다 간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 혼주나 상제에게 이보다 더한 부조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클라이언트의 취중행동 역시 사람들에게 웃음과 여유를 주었다. 그는 곧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저

격사건을 슬프게 재연한다. 그리고 박대통령을 애도하며 서럽게 운다. 하지만 이런 취중행동은 박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사람들 앞에서만 한다. 박정희 정권 시절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에서 납치되어 한국으로 끌려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배 안에서의 공포를 마치 당사자처럼 재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그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탓하지 않는다. 단지 웃음으로 넘길 뿐이다.

위와 같은 광경을 보면서 연구참여자는 잠깐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후 노동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하게 된다. 클라이언트는 공동체 내에서 일종의 광대였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나 클라이언트와 다른 것이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개그맨들은 돈을 벌고 클라이언트는 보수가 없다는 것뿐이다. 이런 클라이언트에게 과연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의문에 빠졌다. 왜냐하면 그는 지역사회 내에서 웃음과 여유라는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에 참석한 연구참여자들 중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출신 연구참여자들(1·3·5)은 연구참여자 6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토론했다. “동네 초상과 결혼에 부고장과 청첩장을 돌리는 일”(연구참여자 1), “여름 복날에 개(犬)를 잡거나 돼지를 잡는 일”(연구참여자 3) 등과 같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 하는 계층이 바로 연구참여자 6의 클라이언트와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때로는 “지역사회내의 갈등을 떠맡는 희생양”(연구참여자 5)이 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6의 표현대로 “밥벌이는 못해도 밥값은 하고 사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생산한 재화는 GDP에도 잡히지 않는다”(연구참여자 3). 하지만 분명히 지역사회 내에서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들과 정부가 “노동하는 인간”으로 개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내에서 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개입을 포기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개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관점을 공유했다. 하지만 인식의 전환(연구참여자 1·4·5)과 실천의 방향수정(연구참여자 2·3·6)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정리하면 일하지 않는 계층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근로의욕 상실이나 도덕적해이 등과 같은 일방적 관측에서 찾지 말아야하며 노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이 아니라 역할부여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상위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기술적 해석 : 실천지식의 생성과정, 내용, 자기변용을 거친 규범적 실천을 중심으로

(1) 해석학적 동요와 또 다른 가설의 창 찾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이론과 지식체계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실천기술로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구체적 생활세계에서 살아 숨 쉬는 인간은 실험실속의 조작된(operated) 인간이 아니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자신들이 일종의 전범(典範)으로

믿어온 이론과 지식체계의 한계를 인지했다.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체계마저 기저로 부터 붕괴되는 경험”(연구참여자 1),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을 포기하고 싶은 체념상태”(연구참여자 2), “실오라기 하나 잡히지 않는 미로”(연구참여자 3), “인식의 공황상태”(연구참여자 4), “사유능력을 상 실한 꼭두각시 사회복지사”(연구참여자 5),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기분”(연구참여자 6)과 같은 인식의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당시 상황은 Schön(1983)이 표현한 대로 “습기 찬 저지대의 늪(swampy lowland)”을 헤쳐 나가는 일상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천현장은 혼돈과 애매모호함의 장(場)만은 아니다. Habermas(1997)가 갈파한 바와 같이 실천은 합목적적이고 정당한 가치를 바탕으로 주체적인 자유의 지를 실현하는 곳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기존 이론과 실천기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체적으로 이를 재구성하는 실천여정에 진입한다.

이론은 또 다른 이론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폐기되거나 수정 될 수밖에 없다. 연구참여자들은 어찌 보면 일종의 혁명적 과업을 자신들이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 빠진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고 싶었다”(연구참여자 5)는 회고가 연구참여자들의 자신감 없음과 도피하고 싶은 심정을 단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론은 천재들의 몫”(연구참여자 3),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문제해결의 열쇠를 주면 좋을 것”(연구참여자 4) 등등의 구술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론은 천재들의 도약적인 사유에 의해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Culler(1999)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론은 당연한 사실로 간주되었던 것들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물음을 거는 것에서 출발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가설의 감옥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가설의 창(window of hypothesis)’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그 가설의 창은 자신들의 경험과의 대화와 성찰을 계기로 열리기 시작했다.

(2) 과거 경험을 현재에서 살리기

경험은 이론과 실천 간의 간극을 좁히고 양자를 현실 속에서 매개하는 원리가 된다. 연구참여자 1은 고대 마야의 사면을 연구한 문헌에서 생명현상을 서로에게 빗짐 이라고 설명한 것을 읽고 세계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먹음과 되먹임”의 의존적인 순환관계라고 심사숙고 했던 경험과 자기대화를 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원조를 설명하기 위해 “부채를 갚는 집단행위”라는 가설적 명제를 생성한다. 연구참여자 2는 교회 기도모임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아동들의 문제행동은 소외된 감정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실천가설을 구성했다. 연구참여자 3은 한국 현대 선불교사에서 큰 족적을 남긴 선승의 일화를 자기 경험화 하여 클라이언트의 이상행동을 “무의식적인 자기정벌소망”으로 가설화 했다. 이에 비해 연구참여자 4는 가설을 구성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실패경험에서 사회복지 지식의 권력화라는 성찰적 문제를 발견했고 연구참여자 5·6 역시 자신의 실천정향에 일종의 종교적 회심과도 같은 전환을 맞게 된다. 이를 형식적으로 정리하면 연구참여자 1·2·3·4는 가설의 생성, 연구참여자 5·6은 자기 변용을 거친 실천지혜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상호주관으로 들어가기

연구참여자들이 구성한 실천지식은 선행연구자들(김기덕, 2003; Dybicz, 2004)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객관적 인식체계로 파악하기 힘든 암묵지 또는 실천지혜의 형태로 발현했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지식은 직관이나 신념 또는 사회과학적 상상력 등으로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귀결로 객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을 확보하고 이를 개념화 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제2의 과업이 필요했다. Videka - Sherman과 Reid(1990)는 이에 대한 구체적 방법으로 민속지학 연구방법(ethnographic methodology), 인지적 도식(cognitive schema), 성찰적 토론과 사례 간 비교를 제안했는데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전공교수(연구자)와 동료실천가들이 참석한 상호주관성 찾기 과정에서 이를 교차 검증했다.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Videka-Sherman 등이 제안한 성찰적 토론과 사례 간 비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개별프로토콜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 1은 생명현상의 근원을 “서로에게 빚짐”이라고 파악했고 실천과정에서 이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리고 상호주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역을 찾았다. 연구참여자2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호주관성의 영역이 ‘숲속의 빈터’처럼 확연히 드러났다. 연구참여자 3의 이상행동의 이면에는 무의식적인 자기정별 소망이 내재해 있을 수도 있다는 실천가설은 연구참여자들에 의해 교차확인 되었다. 정도나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나머지 연구참여자 4·5·6 역시 토론과정에서 상당한 영역의 상호주관성을 확보했다고 사료된다.

개별프로토콜의 내용과 연구자들의 분석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실천지식을 구조화하고 객관성 또는 상호주관성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성립하기에는 체계가 미흡하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식의 본질을 ‘되어감’으로 보고 연구참여자들의 지식생성 활동 과정과 내용을 ‘미완(未完)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남겨둘 것인가?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의 실천지식의 내용과 그것의 일반화된 지식으로의 가능성 못지않게 사회복지 지식체계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요소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성찰’이다.

(4) 익명의 베일을 벗기는 성찰 : 낮설음에서 친숙함으로

그간 사회복지 지식에서는 과학과 객관성이라는 신화 속에서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성찰적 질문을 경시해 왔다. 성찰을 통한 자기화(appropriation) 과정이 없는 지식은 대부분 ‘익명성’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같은 것들... 배우기는 했지만 실천하는데 예는 아무 쓸모가 없다. 사회복지의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수준에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나도 확신할 수 없고 클라이언트도 모르는 무의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그저 현장에서는 낮설기만 하다”(연구참여자 3의 구술요약)

위의 구술과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경험한 기존이론과 지식체계에 대한 회의와 혼란은 바로 ‘익명

성'의 표현이라고 사료된다. 이렇듯 이론과 지식이 실천에 직선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추상과 구체를 매개하는 기제 또는 작용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의 경우 실천가들의 성찰이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icon(1985)은 자기성찰을 목시적이고 비조직적인 것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발생기제로 보고 이를 통해 낯설음이 해소된다고 말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텍스트를 해체하고 묻는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낯설음을 친숙한 것으로 바꾸어 갔다.

연구참여자 1에 있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이라는 갈등주의 관점에서의 빈곤이론은 비록 연구참여자 2에 의해 폐기되었지만 현상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출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 2의 경우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으로 대변되는 인본주의 심리학 이론은 다분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이었다. 하지만 연구참여자의 자기대화와 동료들과의 상호성찰을 통해 '관심중심의 실천'으로 결집되었다. 연구참여자 3 역시 프로이드의 죽음의 본능(thanatos)이라는 검증불가능의 이론은 클라이언트와의 성찰적 만남과 대화를 통해 '무의식적인 자기정벌 소망'으로 구체화된다. 연구참여자4에게 있어 공동의 존이론은 가족 간의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끌림이라는 성찰적 발견으로 기각되지만 사회복지 지식의 권력화라는 가치론적 질문을 생성하게 했다. 연구참여자 5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담론을 뛰어넘어 근원의 영역에서 보편타당한 진술을 구축하려고 했다. 참여자는 실패했지만 탐구과정에서 개별지식이나 담론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한다. 연구참여자 6 역시 성찰을 통해 소위 일하지 않는 계층의 또 다른 사회적 재화의 생산 양식과 내용을 끌어냈다.

위와 같은 서술은 실천지식과 기술을 엄폐하고 있던 익명의 베일을 걷어내고 실천력을 불어넣는 기제는 바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찰은 이론과 실천을 매개하는 기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지식의 진보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5) 자기교육 과정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

주체의 내적혁명 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찰적 자각은 많은 경우에 있어 일시적이고 분절된 양상을 보인다. 연구참여자들의 성찰도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전인격을 투입하여 생성한 성찰적 지식과 실천방향이 변화무쌍한 현실 속에서 실종되지 않게 하려면 얻은 것을 내면화하고 심화하는 성찰의 훈증(薰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연구참여자나 사회복지 실천가들에게 있어 이 훈증의 장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찌고 익히는 과정의 첫걸음은 성찰적 인식과 자각 등을 하나의 실천규범으로 완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성찰적 지식 등을 실천규범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참여자 1은 '생명현상은 서로에게 빚짐'이라는 지식을 생성 한 후 사회복지 실천을 '서로에게 진 빚을 갚는 집단행위'로 규범화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관심중심의 실천과 관심의 회향'(연구참여자 2), '자신의 과거와 타자와의 화해를 돕는 실천'(연구참여자3), '사회복지지식의 탈 권력화에 기반한 실천'(연구참여자 4), '애매모호함을 감내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실천'(연구참여자 5), '노동하는 인간에서 소통하는 인간 관점의 실천'(연구참여자 6)으로 규범화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위와 같은 규범이 실천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미지수이다. 규범적 실천은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간헐적인 에피소드로 나타났다. 심층 분석은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문

체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실천지식은 생성과정과 내용은 물론 자기변용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규범적 실천의 순환적인 틀 속에서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규범적 실천은 성찰을 통해 체득한 지식을 내면화하여 이를 외현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복지 실천은 자기교육 과정이기도 하다.

5. 논의 및 제언

1) 논의

(1) 성찰을 요체로 하는 제3의 과학

사회복지 전문직의 지식체계는 인접학제에서 구성된 이론적 구성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학문의 연혁이 이렇듯 이종교차 변식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데다 실천이라는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아직도 해묵은 성격논쟁이 분분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에 위치한 것은 과학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들의 논쟁을 정리하면 사회복지 지식은 전통적 과학의 인식론적 구획기준(demarcation)에 부합되는 경성과학(hard science)인가 아니면 기예(art)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자의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가(Goldstein, 2001; Jackson, 2000)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엄격한 과학주의로 사회복지 지식을 재단하려고 하는 논자들은 회소하다고 판단된다. 대다수의 논자들은 사회복지지식을 과학과 기예의 속성을 모두 내포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과학으로 간주한다(김기덕, 2003; Dybicz, 2004; Jackson, 2003; Walter, 2000).

논자들이 사회복지지식을 위와 같이 정리 하려는 것은 사회복지 지식의 기예적 속성, 암묵지나 실천지혜 등으로 발현하는 지식의 속성,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현하는 지식의 즉흥성(improvisation)등을 사회복지 지식의 중요 특성이자 정수(精髓)로 포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비록 6명의 사회복지 실천가들의 경험에 국한된 분석이지만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서 사회복지 지식의 또 다른 특성을 발견했다. 이를 정리하면 '성찰을 요체(要諦)로 하는 제3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의 인식론은 수리적 명증성과 인과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객관주의 과학과 개인이 구성한 주관적 의미 등을 중시하는 사회구성주의 인식론이 대립하고 있다. 사회복지 지식의 경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 실천정향을 내재하고 있기에 객관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 하지만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주관주의 역시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는 자칫 어정정한 절충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주관과 객관 그리고 전술한 과학과 기예를 아우를 수 있는 홍범(洪範)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연구자들은 그 줄가리를 성찰로 제시하고자 한다.

성찰은 내적 자기점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구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낮설고 때로는 공허한 지식을 성찰이라는 주체적 활동을 통하여 친숙하고 이용 가능한 지식으로 바꾸어 갔다.

이러한 개인차원에서의 자기 변용을 사회복지학제라는 틀에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 지식체계는 무수히 많은 낱어준 학문(donor discipline)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기존의 텍스트를 해체하고 재구성하여 자기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성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애매모호함을 지고 가는 도상의 실천

사회학자 Lakatos(1974)에 의하면 어떠한 학제이든 그 근거를 이루는 기본가치와 원리, 이론 등에는 연구자들의 결단에 따라 어떠한 반증이 발견되어도 수정이나 폐기가 허용되지 않는 방어적 연구요강(negative heuristic)이 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유일신 사상, 유물론자들에게는 계급혁명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사회복지학의 경우 인간의 변화가능성, 사회적 연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등이 Lakatos의 소위 방어적 연구요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의 실천가나 연구자들 역시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물음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금단의 영역과도 같은 방어적 연구요강을 놓고 깊은 고민과 성찰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도와야만 하는가? 성매매는 왜 금기시 되어야만 하는가? 등등이다. 연구참여자 1은 이 물음을 인간의 근원적 경험, 다시 말해 과학과 학문도 존재하지 않았고 인간과 자연과 그 밖의 사물이 하나였던 원초적 세계로 끌고 들어가 해답을 구했다. 하지만 근본적 물음을 해결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애매모호함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이 애매모호함 이야말로 사회복지의 물론 사회현상의 실체들 중 하나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애매모호함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폐기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가 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 문제를 “숙명”(연구참여자 2)이나 “업보”(연구참여자 3)처럼 평생을 지고 갈 짐(연구참여자 6)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애매모호함과는 지속적인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다루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물음처리 방식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가들은 도상(途上)의 실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천현장은 끊임 없는 문제와 회의와 의문이 시시각각으로 분출하는 곳이고 많은 경우 명쾌한 해답과 일도양단식의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다. 혼란과 애매모호함의 또 다른 양태(樣態)는 긴장과 자기대화라는 것을 수용한다면 또 다른 길이 열릴 것 이라고 사료된다.

(3) 판 밖의 사유

연구참여자들이 의문을 생성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하나의 가설을 구성한 후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찾는 일련의 과정에서 접근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판(板, plate)밖의 사유이다.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연구참여자 1은 고대 마야 문헌에서 신화적 상상력을 얻었고 이를 사회과학적 상상력으로 연결했다. 연구참여자 2는 어린 시절의 자연관찰을 역시 사회과학적 상상력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참여자 3 역시 인문학적 사유를 사회과학적 가설로 이어갔다.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 지식체계에서 물음을 걸 수 없는 경우 사회복지라는 고정된 판을 벗어나 신화의 세계에서, 때로는 인문학의 영역에서 물음을 걸고 그 고리를 다시 사회복지 지식

체제로 예인했다. 그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실천지식은 한층 풍요로워졌다. 만일 다윈이 당시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고정된 판 속에서 사유했다면 진화론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판 밖의 사유가 위대한 사유에로의 도약을 가능케 한 예는 인류의 지성사에서 열거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정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어도 맥락에 있어서는 사유의 대가들과 동일한 궤적을 그렸다.

현재 사회복지 지식체계에 대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험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지식이나 실천기술만을 인정하려는 증거기반 실천(evidence-based practice)도 확산되고 있다(Margo and Hamiton, 2007). 이러한 경향은 효과성에만 경도되어 사회복지 지식체계를 축소시키는 소극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판 밖의 사유와 경험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제언

실천현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수교육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식사회로의 이동이라는 큰 흐름과 실천현장의 다양성, 특수성, 상황성, 발견적 맥락 등은 단순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사들을 비롯한 실천주체들이 실천지식을 생성하고 이를 실천기술이나 지식으로 구체화하는 지식 생산자로의 질적인 전이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개발 방법론의 개발이다. 모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연구자들의 방법론으로는 실천현장의 지식을 두레질하기 어렵다. 연구자들은 실천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지식 개발 방법론으로 귀추(abduction)추론 양식을 제안한다. 귀추추론 형식은 미국의 기호학자 퍼스(Peirce)가 창안한 것으로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에서 설명자(explicans)를 차용하여 현 상황에 대한 가설을 생성하고 이를 토대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 내는 추론형식이다(Fischer, 2001). 귀추는 과거의 경험을 원천으로 하여 현재의 상황에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잠재의식 수준에서 결정되기도 한다(Lawson, 2002).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실천현장은 마치 사육제에서의 다양한 올림이 육화(incarnation)된 경험으로 구성되는 곳이고 이렇게 구성된 경험은 새로운 실천지식 생성의 단초가 되는 가설설정과 이를 끌고 가는 사고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현재화하여 나름대로의 가설을 생성했다.

위와 같은 귀추추론은 사회과학은 물론 실험실에서의 조작적 관찰과 수학적 검증을 전범으로 여기는 자연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적 가설설정의 원천으로 이용되기도 한다(Lawson, 2000; Van Someren, Barnard and Sondberg, 1994).

둘째는 사회복지 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교육의 강화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노숙인들에 대한 개입 접근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대를 풍미하고 있다. 하지만 인문학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계층은 사회복지사들이다. 인문학은 인간 이해의 통로이자 성찰을 통해 과학이 끊어진 곳에서 과학을

잇기도 하고 과학의 부족분을 보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인간이해가 최우선 과제이고 과학을 뛰어넘어야 하는 사회복지에서 인문학은 개별 지식들 속에서 혼적으로만 남아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마치 “거대한 벽에 막힌 기분”(연구참여자 4)이거나 “막막할때”(연구참여자 1) 인문학적 영감을 통해 사유를 끌고 갔다. 이는 인문학의 힘을 재확인 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교육과정은 물론 보수교육 과정에 인문학 강좌를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실천의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네트워크 접근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박경숙, 2008). 네트워크의 본래 목적은 제휴와 연대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 본래의 목적 외에 지식공동체의 기능을 부가하고 이를 통해 실천지식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장텍스트 구성 3단계인 상호토론과정에서 각자의 발견을 공유하면서 토론과 성찰을 통해 심화·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지식의 특성은 ‘공유’와 ‘상호대화’ 그리고 ‘되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결사체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네트워크는 지식의 특성이 잘 작동되는 구조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은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전문직 내에서의 가치충돌과 조정은 물론 사회전체의 지배적인 패러다임과의 갈등과 충돌 등의 관계에서 살펴보아야만 그 총체적이면서도 관계적 성격과 역동성이 여실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서술하지 못했다. 이는 제한된 원고분량으로 인해 개인차원에 집중 하고자 한 것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연구자들의 한계이며 역량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총체적이면서도 세세한 조감도가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 『상황과 복지』 15: 13-43.
- 김인숙. 2004. “사회복지사의 가족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2): 53-70.
- 박경숙. 2008.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공공복지 행정기관, 민간노인복지기관, 공공 보건기관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5(12): 245-269.
- 유영준. 2006. “사회복지사의 반성적 실천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자. 2007. “국어과 교사의 실천적 지식 성찰을 위한 방법론적 탐색 : 성찰적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1: 77-111.
- 홍선미. 2003. “사회복지 실천이론의 실체와 의미”.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25-40.
- 홍선미. 2004.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기반과 학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4): 195-214.
- Ait Razouk, A. M. Bayad, and D. Wannemacher, 2009.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acit knowledge transfer : A Case study”. *Journal Human Systems Management* 28(2): 77-82.
- Anderson, J. R. 1995.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4th ed)*. New York : Freeman and Company.
- Armstrong, K. R. 2003. “Advancing reflective practice and building constructive collegiality : A

- program's influence on teachers experience in urban school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Bolton, G. 2000. *Reflective practice-writing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London : Paul Chapman Educational Publishing.
- Clandinin, D. J. and F. M. Connelly. 1995. *Teachers professional knowledge landscape*. Advances in contemporary educational thought series, Teachers college Press.
- Collins, H. 2007. "Bicycling on the moon : Collective tacit knowledge and somatic - limit tacit knowledge". *Organization Studies* 28(2): 257-262.
- Colne, C. 2003. "An anatomy of narrative curricula". *Educational Researcher* 32(3): 3-15.
- Culler, J. Literary theory, 이은경·임옥희 역, 1999, 『문학이론』, 서울 : 동문선
- D'Cruz, H., P. Gillingham and S. Melendez. 2007. "Reflexivity, its meanings and relevance for social work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7: 73-90.
- Duguid, P. 2005. "The art of knowing : Social and tacit demension of knowledge and the limits of the community of practice". *The Information Society* 21(2): 109-118.
- Dybicz, p. 2004. "An inquiry into practice wisdom". *Families in Society*. 85(2): 197-203.
- Elbaz, F. 1981. "Th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Curriculum Inquiry* 11: 43-71.
- Fendler, L. 2003. "Teachers reflection in a hall of mirrors : Historical influence and political reverberations". *Educational Researcher* 32(3): 16-25.
- Fischer, H. R. 2001. "Abductive reasoning as a way of worldmaking". *Foundation of Science* 6: 361-383.
- Fook, J. 2002. *Social work : Critical theory and practice*. London : Sage Publication.
- Foos, T. G. Schum and S. Rothenberg, 2006. "Tacit knowledge transfer and the knowledge disconnect".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10(1): 6-18.
- Geijel, F. P. Slegers., R. Vanden Berg and G. Kelchtermans, 2001. "Conditions fostering the implementation of large scale innovation program in schools : Teachers perspectiv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37: 130-166.
- Goldstein, H. 2001. *Experiential learning : A foundation for social work education and practice*. Alexandria, VA :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 Habermas, J. *Erläuterungen Zur Diskursethick*, 이진우 역(1997), 『담론윤리의 해명』, 서울 : 문예출판사.
- Jackson, S. 2000. *Lines of activity : performance, histography and domesticity in Hull-House*. Ann Arbor, MI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Jasper, M. 2003. *Begining reflective practice*. London : Nelson Thornes Ltd.
- Lakatos, I. 1974. "Falsification and the methodology of research programmes", In Lakatos, I. and M. Alan(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wson, A. E. 2000. "The generality of hypothetico deductive reseoning making scientific thinking explicit". *The American Biology Teacher* 62(7): 482-495.
- Lawson, A. E. 2002. "What does Galileos discovery of Jupiters moon tell us about the process of scientific discovery?". *Science and Education* 11: 1-24.
- Lewis, L. and N. Bolzan, 2007. "Social work with a twist : Interweaving practice knowledge, student

- experience and academic theory". *Australian Social Work* 60(2): 136-146.
- Margo, T. and J. D. Hamilton. 2007. "Learning evidence - based practice for anxious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6(10): 1367-1375.
- Mitsuhashi, H. 2002. "Uncertainty in selecting alliance partners : The Three reduction mechanisms and alliance formation proc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Analysis* 10(2): 109-133.
- Nonaka, I. R. Totama, and A. Nagata, 2000. "A firm as a knowledge - creating entity : A New perspective on the theory of the firm".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9(2): 1-20.
- Parton, N. 2000. "Some thou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and for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0: 444-463.
- Picon, G., *Lécrivain et son ombre*. 유제호 역(1985). 『예술가와 그의 그림자』. 서울 : 홍성사.
- Polanyi, M. 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 critical philosophy*.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Ray, T. 2009. "Rethinking Polanyi's concept of tacit knowledge : From personal knowing to imagined institutions". *Minerva* 47(1): 75-92.
- Rhodes, I., C. Nelson, and G. Berman, 2003. "The Key to successful collaborations : Rigorous and independent due diligence". *Journal of Commercial Biotechnology* 9(4): 297-312.
- Richert, A. E. 2002. *Narrative that teach : Learning about teaching from the stories teachers tell*. Teachers College Press.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oner : How professional think in action*. New York : Basic Books.
- Smith, D. G. 1993. Hermeneutic inquiry. In E. C. Short(ed). *Forms of curriculum inquiry*. Albany : SUNY Press.
- Tice, K. W. 1998. *Tales of wayward girls and immoral women : Case records and the professionalization of social work*. Urbana :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Van Someren, M. W., Y. F. Barnard, and J. A. C. Sandberg. 1994. *The think about method : A practical guide to modeling cognitive process*.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Videka - Sherman, L. and W. Reid. 1990. *Advances in clinical social work research*. Washington DC : NASW Press.
- Walter, U. M. 2003. "Toward a third space : improvisation and professionalism in social work". *Families in Society* 84(3): 317-322.

A Study on the Essence of Practice Knowledge of the Social Workers

Lee, Keun-Moo

(Sung Kyun Guan University)

Kim, Young-Sook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generative process, contents and normative practice of social workers practice knowledge and grope the suggestion for the reconstruction of social work knowledge.

The authors approached with reflective narrativ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six social workers who have engaged in social work.

As result, when they have confronted unaccountable phenomenon they generated knowledge through self - reflection and these confirmed, reproduced through normative practice. The researchers proposed the abduction resoning form for the knowledge development method in social work practice field, the reinforcement of human studies in social workers educational process, reconstruction of the network practice.

Key words : practice knowledge, reflective narrative method, reconstruction of social work knowledge.

[논문 접수일: 09. 07. 30, 심사일: 09. 08. 14, 게재 확정일: 09. 08. 30]